

## 그리스도인 15.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Christian 15. There is a price to be paid to become a Christian.

죄인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그가 죄인이었기에 죄 값이 지불되어야만 한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마 5:26)

한 사람이 자기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올 수 없음같이, 죄인이 죄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죄는 속성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데, 만일 죄인이 죄들을 사면 받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게 된다.

중세시대에는 면죄부를 사야만 죄들을 사면 받는 것처럼 가르쳤다. 그리하여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다. 그러나 성경기록은 돈으로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라면 화해헌물이 필요하고 그 화해헌물이 곧 죄 값이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화해 헌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참으심을 통해 전에 지은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셨고,(롬 3:25)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시는 희생물이 되셨다. 이제 누구든지 그분의 피를 믿으면, 다시 말해 그 피가 자기 죄 때문에 흘려진 것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해 헌물이 되신다. 하나님의 화해헌물이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그의 죄 값이 다 지불되었다고 인정하신다. 그리하여 그 믿는 사람을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죄들을 사면해주시며 의롭다고 인정해주시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받아주시며 그와 화해를 이루신다.

그래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화해헌물(propitiation)**이라고 한다. 화해 헌물은 **하나의 희생물**이다. 화해 헌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만드는 헌물**이다. 화해헌물은 죄인 편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다. 화해헌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것이다**. 구약의 희생제사 속에서 드러진 희생물들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끝내고 죄인으로 하여금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가 말하는 화해헌물 역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끝내고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아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헌물로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를 가져오는 희생물**이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자신의 죽음, 자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 값을 지**

불하셨다. 때문에 성경기록은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도 부른다(요 1:29). 하나님의 어린양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 사람이 마련한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화해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헌물이다. 이 헌물의 희생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끝내실 수 있다.

우리의 죄로 야기된 형벌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린양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지시고 갈보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때 그분은 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이루기 위한 일을 하셨다.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벧전 2:24)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 죽으신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롬 5:6)

예수님은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베드로는 '다른 어떤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행 4:12)라고 설교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요 14:6)고 가르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중재자는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딤후 2:5)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시다. 천사는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로 인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마 1:21)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어졌도다.'(It is finished, 요 19:30)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죄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존중해서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하신 일이 그 믿는 자를 위한 것이 되며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분이 그같은 일을 했어도 그 믿지 않는 자의 삶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는 여전히 진노의 대상일 뿐이다.

**예수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죄인의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화해헌물로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므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죽음과 피가 우리를 위한 것으로 믿어 죄들의 사면과 구원을 얻는다.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